

가슴으로 배우는 우리 불교문화

대한불교교사대학, 전남 8대사찰 답사여행

1박2일 동안 8곳의 사찰을 답사하는 것이 시간 및 체력면에서 가능할까? 그저 둘러보는 구경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볼랐던 것들을 배워 나가는 답사여행이라고 하면 분명 무모한 도전이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불교문화를 가슴으로 배우겠다는 신념과 어린이들에게 우리 시대의 불교문화유산을 바르게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전라도의 8개 사찰을 일 톨 없이 누볐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한 도전하는 이들은 바로 동원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범어사 주지)의 당찬 학생들이다.

대한불교교사대학은 1월 6~7일 전라도 8대 고찰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제11기 학생들의 졸업여행을 위해 기획한 이번 여행은 선암사를 시작으로 송광사, 쌍봉사, 운주사, 화엄사, 연곡사, 쌍계사, 칠불사 등 사찰 8 곳을 답사했다.

새벽 6시, 첫 번째 목적지인 선암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침예불을 올렸다. 이어 오늘 답사하게 될 사찰에 관한 풀밭퀴즈로 예습을 하기도 했다. 오전 9시, 첫 번째인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당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의 인솔자로 나선 김광호 부학장은 학생들에게 선암사의 답사포인트로 독특한 경내 구조와 원통전의 아름다운 문살, 태고종 고유의 이색적 정취를 눈여겨 볼 것을 권했다.

김광호 부학장은 "우리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답사, 견학, 학습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강의실에 앉



대한불교교사대학 대중들은 1월 6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아 책으로만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만져보고, 밟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지에서는 당장과 이어진 독특한 일주문과 영가들의 관속소인 세월각과 최주당 등을 살펴봤다. 현재 동안거 중인 스님들이 경내를 오가는 모습에서 실제 스님들의 수행분위기와 삶의 숨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사찰인 쌍봉사주지 영지에서는 갑작스런 화재로 불에 타 소실돼 복원불사를 한 지장전을 중심으로 답사했다. "현대의 국내 단청채색 기술로는 원형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해 갑히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스님의 설명에는 다들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을 이용해 정교하게 기워 맞춘 석축에 감탄

하기도 했다. 오후 4시,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인 천불전탑의 성지 운주사주지 정행에 도착했다. 절 입구부터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석탑과 석불이 늘어선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현재 석불 93구, 석탑 21기만이 남아있지만, 그마저 빠르게 훼손되고 있음에 안타까워했다. 거대한 와불 앞에서 찬불가 '석가모니불'을 큰 소리로 합창했다.

답사단 중 가장 먼 대구에서 참가한 오가정(대구 보림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씨는 "항상 대한불교교사대학의 학생들이 자랑스러워 10기 수료 후 11기에 재입학해 이번 졸업여행도 동참하게 됐다"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도 답사단의 열혈 참여는 계속됐다. 다섯 번째 답사지인 적멸보궁 화엄사주지 종사에 들어서자 단박에 일주문의 독특한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 어제 배운 송광사의 일주문처럼 답사가 연결돼 있어, '일주문'이라 불리는 범어사 일주문과는 확실히 다르다. 전문 문화해설사 2명이 동행해,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서 갖춰야 할 화엄사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꼼꼼히 배웠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각황전과 석등, 사자자삼층석탑 등의 문화유산은 그 유래와 구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배웠다.

여섯 번째 답사지인 연곡사주지 정행에 도착했다. 절 입구부터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석탑과 석불이 늘어선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현재 석불 93구, 석탑 21기만이 남아있지만, 그마저 빠르게 훼손되고 있음에 안타까워했다. 거대한 와불 앞에서 찬불가 '석가모니불'을 큰 소리로 합창했다.

답사단 중 가장 먼 대구에서 참가한 오가정(대구 보림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씨는 "항상 대한불교교사대학의 학생들이 자랑스러워 10기 수료 후 11기에 재입학해 이번 졸업여행도 동참하게 됐다"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도 답사단의 열혈 참여는 계속됐다. 다섯 번째 답사지인 적멸보궁 화엄사주지 종사에 들어서자 단박에 일주문의 독특한 형태가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행복한 부산은 우리 손으로...”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신년 월례회 개최

부산지방경찰청 상하 경승실(실장 정여, 범어사 주지)은 1월 18일 흥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신년 월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경승실 경과보고, 정여 경승실장의 치사,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사, 심산 흥법사 주지 환영인사, 신년축하 덕담, 공지사향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경승실장 정여 스님은 "부산의 치안이 잘 이뤄져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 모든 직원의 숭고한 노력 덕분이고, 스님과 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늘 감사한다"고 치사했다.

이에 앞서 경승실 총무 성각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경승단은 경찰청에서 경승 소임을 맡은 7명의 스님 및 14개 지역구 경찰서에서 종교지

도자로 활동 중인 여러 스님들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며 경찰청 경승다운 면모를 보이자"고 말했다.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한 데에 불교의 힘이 컸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기는 힘들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스님들께서는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맡아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1월 18일 부산 흥법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신년 월례회 모습.

이날 행사에는 정여 경승실장(범어사 주지), 성각 스님(월각선원장), 금종 스님(해광사 주지), 원허 스님(해원정사 주지),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일광 중부경찰서 경승실장(범어사 포교국장) 및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철준 금정경찰서장, 경찰포교사회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인문학의 최고봉 불교 철학을 만나자

정해학당, '대승기신론 해동소' 개강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정해학당(원장 오경이)은 2월 2일부터 '대승기신론 해동소' 강좌를 개강한다.

강의는 <대승기신론>을 짓는 이유를 설명한 '인연(因緣)'과 <대승기신론>의 대의를 밝히는 '의(義)'를 구제적으로 논술한 핵심 부분인 '해석(解釋)', '민(信心)'이라고 말했다. (051) 852-0852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권수이(權修利)' 등 5개 단원으로 나눠 1년 여간 진행된다.

그동안 <화엄경> <유마경> <금강경> 등 강좌로 재가불자들을 경건 공부의 바다로 이끌어온 원장 오경 스님은 이번 강좌를 개설하면서 "불교를 왜 인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지, 불교 철학의 진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행활동의 질

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경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관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자 하는 지성이니라면 누구나 들으면 도움이 될 인문학적 논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 30분~10시, 수강자는 선착순 15명에 한한다. (051) 744-5322

박지원 기자

‘홀로청소년’ 건강한 성장도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사장 정원)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 운(이하 라운아카데미)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구립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로

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범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방과후 부모의 부재로 인해 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검진, 급식지원, 학습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방과 후 오후 3-8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이어지며, 일주일간 교과목 학습 10시간, 국악, POP, 검도, 수영 등 선택

과정 10시간, 놀토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참가생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만족도 조사와 이를 다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피드백 전략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매월 프로그램 안내서, 청소년의 학습평가서로 적극적인 의견을 유도해 우리 청소년들을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51)405-5223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증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에도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맙고, 삼재관재수로 번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증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운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가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여지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증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신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은행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사랑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복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받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얇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지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공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증생들의 근심, 격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복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